

연중 제 15주일

기도서 P. 389 A해

제1독서(이 사 55, 10-11)  
 제2독서(로 마 8, 18-23)  
 부 음(마 태 13, 1-23)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상론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김 종 길 신부

공복배움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전해지는데 그 첫번째로 등장하는 큰 비유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태오 13:4~9)이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중의 하나인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이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비유이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를 네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① 길바닥에 떨어진 씨 :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13:4). 누구나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사람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썩도 나오기 전에 씨는 없어진다 는 것이다.

② 돌밭에 떨어진 씨 :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채 말랐다(13:5). 이 사람은 하느님을 의식하고 자기생활의 궤계와 합리화 때문에 뿌리가 말라버리는 경우이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의 생활태도를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돌밭에는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

③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13:6).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마음이 질식되는 경우이다. 말씀보다 맘몬(재물)의 노예가 된 경우이다.

④ 좋은 땅에 떨어진 씨(13:8) :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백배 혹은 육십배 혹은 삼십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서 나타났지만, 반대와 의혹에 부딪힌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거나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 곁에서 떠나버린다. 어떤 이들은 머리로만 깨닫지만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 뿌리가 마르거나 싹이 질식해 버린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분의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분은 확신과 희망에 가득차 있다. 하느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아무도 그때를 막을 수는 없다. 그때에 대응책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비유는 실패가 연속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대공작의 앞날을 제시해 주고 있다.

물질문명이 거세게 밀어닥쳐 오고 개인주의가 응어리져 신앙문제와 대결하는 오늘날의 사회 현실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실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과연 어떤 땅에 떨어진 씨일까? 나는 과연 ①~④ 중에 몇번에 해당되는 씨일까? 알아보고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부안천주교회 주임신부>



## 어, 시원하다!

짜증나는 장마철이다. 비가 오지 않아 그토록 애타게 목말라왔던 어제였는데, 이제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연일 비가 오락가락한다.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물난리요, 연탄 아궁이는 물에 젖어 이부자리마저 눅눅하고, 때만난 파리 모기는 극성이 한창이니, 서민배 얼굴에 주름이 퍼질 날이 그리 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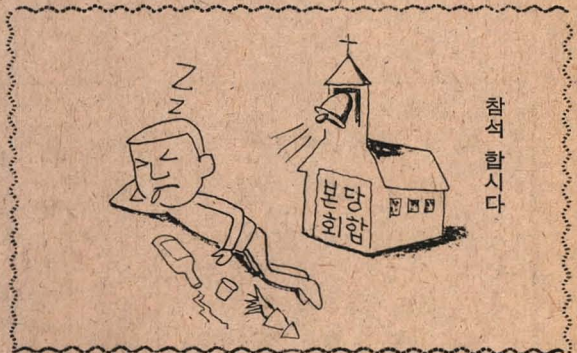
여유만 있다면, 이 좋은 때에 부부 동반하여 비행기타고 해외여행도 즐기며, 날적한 푸른 들밭에서 힐끔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도 좋으리라. 은은한 음악소리를 들으며 담소를 나누고 한 잔 술을 기울이는 것은 금상첨화리라. 하지만, 교통수단은 소유하지 못하는 서민들이야, 큰 맘이나 먹어야, 만원버스에 시달리며 구정물이 다 된 바닷가나 냇가를 찾아서 덩벙대는게 고작이다.

그래서 어렵사리 나날을 지내는 우리에게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쾌지수를 따라 덩달아 썰게 아니라 미소지수를 높이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의 언행에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기도하는 한 박자 쉬어서 생각하고 웃음을 보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말쑥하며, 그 피로는 덤덤한 막걸리나 특초는 소주 한 잔에 씻고, 한 바가지 퍼붓는 등물로 맘을 닦아내야 한다.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 때 아닌 환파가 밀려닥치는 일이 없음을 감사드리며, 살인적인 폭서가 없음에도 두 손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철부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저 농사나 잘되고 모두들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계절적으로 더운 때이고 장마도 있는 때이니, 서로 노력해서 지혜롭게 살자.

어, 시원하다.

## 숲 정 이 산책



참석 합시다



# 성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①

—성서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과의 이야기이다.

사실 성서는 하나의 이야기이며 우리 자신이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주인공은 하느님이며 성서는 바로 하느님의 이야기이다. 또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오늘의 나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성서의 이야기(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성서는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될 것인지(?)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주며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참으로 하느님이 누구이시며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성서란 기쁜 소식이다.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느님을 의문하고 수없이 배반하였어도, 하느님은 결코 인간을 의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백성인 인간을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기 때문이다. 즉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장차에도 행하실 하느님의 위대한 행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하느님 구원자요,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성서 전편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성서는 구원의 책이다.

구원이란 곧 해방이요, 새롭게 함(쇄신)이요, 결국 전우주의 갱신(새 창조)이라는 말이다. 성서의 최대목적은 우리 자신이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바울로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성서는 과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서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서적이다.

하느님의 인간구원 계획이 과거에 계획되고 진행되면서 시간의 한 시점에서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미래속에서 완성에 이를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는 책인 것이다.

그러면 이런 성서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제 눈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 7:1-5)

탐욕과 사악이 사회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인줄을 알면서도 앞을 못보는 장님처럼 양심의 소리를 속여가면서 본능에의 직관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모르는 척 산다는 것은 서글프고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임을 미워하고 삶의 뜻을 스스로 무시해 버리고 싶은 충격을 금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약인이라고 규정짓기를 싫어하죠. 그러기에 남이 욕을 하면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게 우리의 생활태도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이의 외도만 보고 자기식대로만 판단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데는 언제나 둔한하다는 사실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전에 먼저 자기를 보고 스스로의 마음이 어떻게 더럽혀져 가는가를 깨달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하는 길이며 밝은 삶을 위한 참다운 길이 아닐까요.

## 「전주교구 신학생 장학회」

지난 7월 3일부터 새로이 조직된 교구 「신학생 장학회」의 회장단과 위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장단 : 회 장-김 환 철 신부(교구장 직무대행)  
부회장-김 봉 희 신부(사목국장)  
          김 용 태 신부(관리국장)  
          조 성 호 (평협 회장)  
간 사-한 상 갑 (평협 사무국장)

### 상임위원

- ① 사제단 대표 : 안 부 진 신부(군산 둔율동주임)  
                  황 인 규 신부(삼례 주임)  
                  김 병 열 신부(전동 주임)  
                  문 정 현 신부(중앙 주임)  
                  김 영 신 신부(창인동 주임)
- ② 평신도 대표 : 문 지 식 (의사회 회장)  
                  고 수 창 (약사회 회장)  
                  양 윤 모 (신협 도지부장)
- ③ 특별회원 대표  
                  김 인 협 (중앙 분당)  
                  조 경 만 (둔율동 분당)  
                  노 인 석 (노송동 분당)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 5 1 3  
한 철 재 (비오)

여름철에는 값이 싸니까  
순 누에고추 100% 이불솜  
**하 이 실 크(眞)**  
자매품  
**슈 퍼 실 크(元)**  
순명주(SILK 100%) 보증표를 확  
인하세요  
**제조원 海星製綿工業社**  
전주시 금암동 678(덕진경기장앞)  
소 루 가(秉乙) 전화 ③9045

建設部登錄 測量設計業  
**大 路 技 術**  
代表 金 鍾 淳(베드로)  
全州市 中央洞 1가 36~13  
(명동여관 뒤편) 전화 ③3606  
1. 地形質變更 측량설계  
2. 住宅建設團地  
3. 都市計劃施設決定 (학교등)  
4. 國公有地占用許可 측량설계  
5. 其他各種土木工事의 측량설계

### □ 성직·수도자 사회사목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지난 7월 6일~7일, 가톨릭 센터 강당에서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사회사목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교구내 성직자·수도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화되는 사회와 다양한 사회특성에 대해 교회가 배려할 사목적인 문제를 각계 사회학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토론되었다. 특히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사업에 대한 제문제를 분석하고 재고찰함으로써 사회사목에 대한 교회의 활동을 새롭게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 □ 지역 선교의 전초기지 「수녀원」 건립에 힘모으는 대야·순창본당

군산과 이리 사이에 위치한 대야본당(주임신부 한기호)과 교구내 최남단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진 순창본당(주임신부 강덕행)이 효과적인 지역 선교의 일환으로 수녀원 건립에 남녀노소 구별없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야」는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8월까지 신입, 82년 1월까지 봉헌, 3월초에 공사 착수 예정이다.

한편 「순창」은 1천만원 목표의 「수녀원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당 신자들의 적극적인 봉헌과 타교구 본당의 협조로 수녀를 모시기 위한 꿈에 부풀어 있다.

언덕배기를 오름에 서로의 힘을 모두어 뜻한바의 지역교회 발전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한 수녀원이 신축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자.

### □ 전주 「성모병원」 신축관계로 휴원

선교와 사회봉사 기여(寄興)의 한 부분을 담당해온 성모병원이 더 나은 봉사를 위하여 신축중이다. 이 관계로 7월 7일부터 82년 2월까지 시한부 휴원을 한다.

착오없이시길 바라며 멋진 모습으로 문을 열날을 기다리자.

### □ 이병호(빈첸시오) 신부 모친 선종

불란서에 유학중인 이병호 신부의 모친 故 김삼련(나타리나) 여사가 7월 4일 별세했다. 위급하다는 소식에 먼 길을 날아온 이신부님은 임종을 지켜왔다.

김주교님을 위시한 전국의 동창신부와 교구신부 30여분이 모여 장례미사와 고별식을 갖었다. 우리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도중에 기억하자.

영 (축)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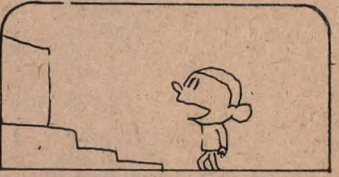
서 정 수(알렉시오) 신부님-7월 17일  
이 수 현(보나벤투라) 신부님-7월 15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 □ 양 서 소 개

테살로니카 전·후서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신약성서 진토마스 역 1,000원  
바울로 서간중에서도 테살로니카 전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처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자상하고도 정다운 격려의 서한과도 같다. 신약성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작성된 문서이며,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공적문서로 귀중한 것이다.  
해제와 각주 부록으로 바울로의 생애가 수록돼 있다.

### 요셉이 (414) 김병호



**개 원 안 내**

※ 교우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군산 방사선 (X-선)과 의원**

부설: 임상 병리 검사실  
원 장: 방사선과 전문의  
오 중 현(프란치스코)  
군산시 중앙로 1가 85~2  
(시청 정문앞 이성당 2층)  
전 화 ④ 4331 (X-선과)  
② 2275 (임상병리검사실)  
X선 검사: 일반 촬영  
특수 촬영  
종합 검사

※ 최신 기계 도입  
X-선 TV(텔레비전)  
자동 현상기, 간기능 검사

### 회 원 모 집

본 연구원은 여성들의 취미 및 부업용을 위한 여성 교실입니다. 바가지 공예를 배우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수시로 접수(개인지도)

조흥은행	2층 주택은행	<b>김 정 자</b>
←오거리	이경범 방사선과의원	<b>바가지공예연구원</b>
	중소기업은행	<b>김 정 자(마르타)</b>

### 토롱진액 판매 안내

토롱진액 개발에 따라 성모병원 3층에서 아래 장소로 이전 판매하니 애용하시어 건강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 종래보다 18배의 효능

성분	토롱탕	토롱진액	가탕 1회	진액 1회	생토롱
분	조단백 0.4%	조단백 75%	1.000	3.000	1kg 8.000

(본 판매업을 희망하지는분은 문의 바람)

한국토롱식품공업사 전남·북지구 대리점  
전화 ②2301 ②6545 ②1179 경원동 1가 110-4  
아카데미상가 뒤, 안산부인과 옆(전화주문 배달함)  
유태열(스메파노) 유중현 배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1. 교리교사 연수회...7월 25~26일, 접수 25일 오후 1시
- 2. 5지구 학생회 체육대회...17일<금> 10시(상관천주교회)
- 3. 도보 묵상 순례 참가희망자 예비 모임  
일시-7월 14일<화> 오후 3시, 장소-가톨릭 학생회관<전북대 앞>  
※ 접수자 전원 참석하십시오

(중양)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순  
3874번 보좌 신부 정출호  
보좌 신부 박인규  
사도 회장 김병환

- 1. 뿌리아 율례회 : 오후 2시 강단
  - 2. 마리아블리 : 7월 25일부터 3박 4일 논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합시다
  - 3. 금요 성서연구 : 오늘중 신청하시기 바람(사무실)
  - 4. 첫 영성체 교리 : 주일학교 토요일 오후 3시(8월 15일 영세대상자 포함), 중·고생-토요일 오후 6시·수요일 오후 8시
  - 5. 예비자교리 : 노인반-〈목〉 오전 10시-이소피아수녀 〈수〉 오전 10시, 남자반 : 〈주일〉 오전 11시30분-유종환 신부, 〈목〉 오후 8시, 여자반 : 〈주일〉 오전 11시 30분-유병욱 수녀, 〈목〉 오전 10시·오후 8시, 학생반 : 〈주일〉 오전 10시-이소피아 수녀, 〈토〉 오후 6시
  - 6. 6월 28일 영세하신 분은 각 신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교무금 미납하신 분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 8. 썬 지도위원회 야외피경 겸 단합대회 : 7월 17일<금> 오전 9시
  - 9. 대학사회 야외피경 겸 단합대회 : 14일<화> 오전 9시
  - 10. 중·고등학생 단합을 위한 심·어롱 : 매주 목요일 재미사우
- 지난주 봉헌금 : 532,855원 감사헌금 : 소재마(4천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 1. 제19차 성령세미나 : 13일~18일까지, 매일 저녁 8시
  - 2. 베소라 성서강의 : 매주<화> 저녁 8시부터, 구약을 끝내고 7일부터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3. 신자 가정방문 : 15일부터~18일까지, 매일 오전중에 남노송동 신자가정을 방문합니다(매기 바람)
  - 4. 뿌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은 빠짐없는 참여 바람
  - 5. 주일학교 하계 방학교리 : 27일<월>~8월 1일<토>까지
  - 6. 성모회 율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7.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요한 묵시록, 전체
  - 8. 신우회 율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70,73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서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 1. 축! 영명축일 : 유영도 보좌신부님 축하식-오늘 공식미사 후, 많은 기도 바랍니다
  - 2.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11시·수요일 저녁 8시
  - 3. 성서연구 모임 : 수요일 오후 3시 어머니팀-금요일 저녁 8시
  - 4. 주일학교 여름방학 : 오는 16일부터
  - 5. 남성 레지오 마리에에 뜻있는 분 사무실에 신청바람
  - 6. 미사시간에 늦지 맙시다 : 성서·성가집 지참
  - 7.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지난주 봉헌금 : 436,400원

(복자)

전화 ⑤232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 1.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상관 신리다리
  - 2. 예비자 교리에 관심을 가집시다
  - 3. 주일학교 : 매주일 오후 2시, 어린이미사 3시 부모님들 관심을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보내 주세요
  - 4. 중·고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학생미사에 나오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재미사에 학생들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 330,510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혈수

- 1. 반장 율례회 : 공식미사 후
  - 2. 뿌리아 모임 : 12일<일> 오후 2시 회의실
  - 3. 할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구역미사 : 9반(14일), 10반(15일), 11반(17일) 저녁 8시미사
  - 5. 본당 정화사업 헌금 : 감사합니다 구양례·문정순·김경례·정만성·이거영·송기순·최정희·권세시리아·이영희·정승자·손숙옥·이재구·김광수·유순이(각 1만원), 조정웅·박장춘·장기호·강남준·조동근·김나섭·겸낙완·김한기(각 2만원), 박경옥·차상열·이희정·이익순·전복순·노희순·방성용(각 5천원), 정정순(3천원), 김행자(2천5백원), 이정빈(5만원), 계 380,500원
  -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 조동근 ② 김광수 신자들의 기도-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 203,750원 교무금 : 154,900원

(순정이)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성모회 율례회 : 7월 19일 공식미사 후-회의실
  - 2. 공식미사중 치명자의 모후에서 어린이들 돌봐줍니다
  - 3. 예비신자 교리 :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3시·밤 8시
  - 4. 축! 개업 : 마리아 의상실-순정이성당 상가
  - 5. 차주 전례담당 : 해설-정주복 독서-① 박대규 ② 김기만, 기도-노재두
- 지난주 봉헌금 : 304,495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 1. 자모회 : 공식미사 후
  - 2. 장우회 : 저녁미사 후
  - 3. 성화회 : 다음주(19일) 공식미사 후
  - 4. 꼬미시움 : 다음주 오후 2시
  - 5. 수녀원 신축기공에 협조해 주신 형제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 이름 3체 회사-양한승(방지거) 감사
  - 6. 다음주(12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 최병래 ② 변덕배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 이주영 ② 백종훈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 변해식 ② 경양수
  - 7. 주일학교 보미사단과 6학년 수련회 일시-7월 21일(2박 3일), 장소-고산 하계교리 : 7월 27일~8월 1일, 회사금 협조 부탁
  - 8. 전동성당내 전체대학생 야외회경 단합대회 7월 15일, 성모상 앞
- ☆ 학사님들 사목실습(강경배·이동·김태환·이사정·김교동) : 훌륭한 사제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478,67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 1. 뿌리아 회합 : 오늘 2시, 브레시디움 간부들 빠짐없이 참석을 바랍니다
  - 2. 결혼미사 : 오늘 11시
  - 3. 중·고생들은 7월 25일 논산에서 마리아블리 회합이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4. 첫 고백·첫 영성체반은 7월 27일~8월 11일까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5. 예비신자 교리 : 주일 10시미사 후 유치원에서
  - 6. 레지오 마리에에 입단해서 천교사업에 참여합니다
  - 7. 어머니 성가대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참석바람
- 지난주 봉헌금 : 173,695원 교무금 : 144,000원